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나
파견국가	CANADA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5.09.08~12.19
귀국여부	2016.01.16 귀국예정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VANCOUVER에 위치한 LANGARA COLLEGE는 SKY TRAIN 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통학하기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다운타운과도 SKY TRAIN으로 20분정도 소요되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ANGARA COLLEGE가 순천향대학교 캠퍼스보다는 소규모지만, 학교 내에 STARBUCKS와 TIM HOLTEN등 카페와 CAFETERIA 및 서점 등 웬만한 시설이 위치하기에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캐나다는 한국의 대학시스템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UNIVERSITY에 바로 진학하기 보다는 COLLEGE과정에서 공부한 후, 편입하는 시스템입니다. LANGARA COLLEGE에서 수강한 'LEAP (LANGARA ENGLISH ACADEMIC PROGRAM) 또한 UBC, SFU 등 현지 UNIVERSITY로 편입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RAMMAR보다는 WRITING(ESSAY), PRESENTATION 등 현지 대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문장마다의 구조 틀부터 글로 표현해내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READING, LISTENING 훈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매일마다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과제가 있는데, 대부분은 READING, LISTENING본문과 문제를 풀어오는 과제이지만, 프레젠테이션 과제와 거의 매주마다 실시되는 WRITING을 위한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듯이 LEVEL 5가 되면 약 4주에 걸쳐 ESSAY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시간과 과제도 상당했습니다. 한 SESSION에 선생님은 2분인데 주로 성향이 반대이신 선생님(ACTIVE, CALM)이 배치되기에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저는 LANGARA COLLEGE에서 많은 외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클럽활동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그 중 FOCUS CLUB(FOREIGN OVERSEE COUNTRY UNIVERSITY STUDENTS)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는데, 클럽활동의 목적이 국제학생들을 위한 친교 모임이어서 흥미롭게 참여하였습니다. FOCUS CLUB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한 교회에서 음식과 청소로 봉사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고, 추수감사절에는 현지인 집에 초대받아서 캐나다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었습니다.</p> <p>또한, 학교 내에서 국제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I-CAFÉ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간단한 간식거리가 제공되며 자연스럽게 외국 학생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9월에 파견되어서 밴쿠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밴쿠버는 토론토가 몬트리올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온난한 기후이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감기에 유의해야 했습니다. 또한, 레인쿠버로도 불리는 밴쿠버는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비가 굉장히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을 필수로 지참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레인부츠도 많이 신고 다니기에 장화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밴쿠버는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현지 다운타운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 해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처음 한 달 동안 홈스테이에서 살았지만, 그 곳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10월~12월까지 다운타운의 셰어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3명이 살았는데 저는 거실룸을 사용하였습니다. 홈스테이 비용에 비해 절반 가까이 싼 가격에 거주하였고, 다운타운이라는 번화가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사한 후 아주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홈스테이가 아닌, 룸쉐어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O)</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사실 외국에서 매끼마다 챙겨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홈스테이에 있을 때에도 제가 직접 요리를 해먹는 방식이었지만, 홈스테이 부모님이 청결에 대한 부분에 너무 민감하여서 집에서 요리를 잘 해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고구마를 식대용으로 먹었으며, 홈스테이를 나와 룸쉐어를 할 때에도 주로 고구마를 식대용으로 챙겨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로 밴쿠버 현지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외식들 하기도 하였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밴쿠버의 버스는 배차간격도 정확하지 않고, 밤이 어두워지면 배차간격이 자주 없어서 저는 주로 SKY TRAIN을 선호하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비슷한 SKY TRAIN의 배차간격은 3분으로 바쁜 통학시간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다운타운에서 학교까지는 거의 45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저는 걸어 다니기 선호하여서 SKY TRAIN 역까지 20분 정도 걷고, SKY TRAIN을 이용하여 학교까지 25분정도 소요되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86만원	일본 ANA 항공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0원</p>	장학금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12만원</p>	한화 해외여행보험
숙소	188만원	<p>9월 홈스테이 68만원(800달러) 10월 룸쉐어 40만원 (480달러) 11월 룸쉐어 40만원 (480달러) 12월 룸쉐어 40만원 (480달러)</p>

식비	30만원	
교통비	30만원	MONTHLY PASS 30만원(91달러*4달=364)
책값	0원	유인물 대체
통신요금	16만원	FIDO(45달러*4달=180달러)
기타2		
기타3		
합계	362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벤쿠버는 산과 바다로 둘러 쌓인 쾌적한 환경과 치안도 안전한 편이기에 별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로 넘어가면서 비가 자주 내리지 때문에 우산, 비옷, 장화 등을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처음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은 한국음식을 먹지 못할 까봐 걱정할 수도 있는데, 벤쿠버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기에 한식당, 한인 마트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작년에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계기로 교환학생의 꿈을 키워서 이번 교환학생에 파견되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교환학생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LEAP 4,5 LEVEL을 수강하여서 오전반 (8:30~12:30)수업이어서 수업 후 약 3시간 가량의 숙제를 마친 후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이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많은 과제들이 매일 쏟아졌지만, 저의 영어 실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PARAGRAPH를 작성하는데 한 문장요소마다의 기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ESSAY로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매주마다 바뀌는 주제가 가벼운 주제가 아닌 캐나다의 FIRST GENERATION, MEDICAL, MEDIA등의 유용한 주제들로 공부할 수 있어서 많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수업에서 문법을 가르치지 않지만, 본인이 문법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학교 내에 따로 문법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 수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약 15만원 정도 소요)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클럽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외국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으며, 다양한 캐나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캐나다의 THANKSGIVING DINNER에서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함께 나누며 한국에서는 체험해 볼 수 없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케네디언 교회도 함께 나갔는데, 한국교회와는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회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교회에서 VOLUNTEER로 섬기면서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고, 많은 케네디언들과 더불어 많은 국적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밴쿠버에는 강과 산이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조깅을 많이 즐기기에 OUT DOOR SPORT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환경캠페인과 더불어 마라톤 대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 'GREAT CLIMATE RACE'라는 마라톤 대회에서 환영팀으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마라톤대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태양열 에너지 개발에 기부하는 취지에 열린 마라톤 대회였는데, 캐나다 환경 캠페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LEAP 5 FINAL시험 후 선생님+반 친구들



GROUP PRESENTATION 포스터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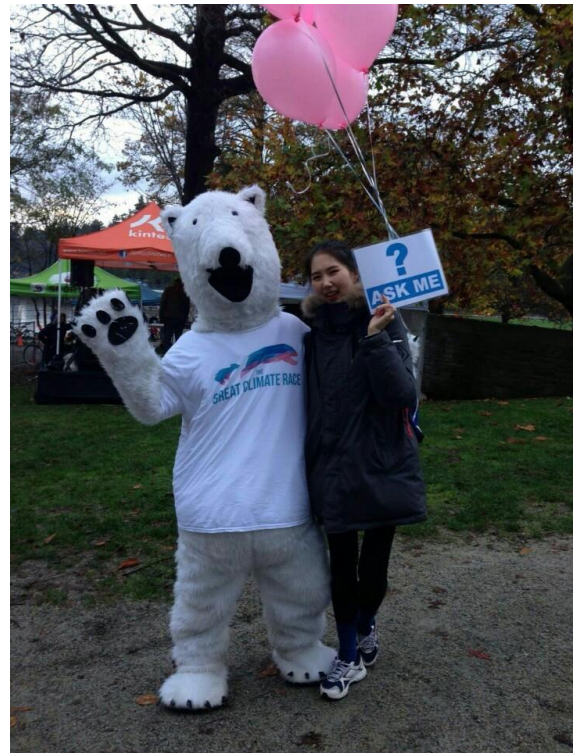
WITH CANADIAN CURCH MEMBERS



일본친구 생일파티



마라톤대회 홍보 박람회 자원봉사



마라톤대회 WELCOME TEAM봉사